

엔씨소프트, 세계 첫 '게임사전' 발간

2188개 게임 관련 표제어 실어 이여령 전 문화부장관 감사 말아

이해하기 어려운 게임 용어의 뜻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사전이 발간됐다.

엔씨소프트의 비영리재단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게임사전 : 게임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디지털스토리텔링 학회와 함께 게임의 개발, 유통, 문화를 아우르는 게임사전을 제작했다. 게임사전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게임사전은 게임의 개발·플레이·미학·문화·시대별 대표 게임 작품 등을 바탕으로 표제어 2188개, 1304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표제어 선정은 최근 5년간의 게임 용어를 대상으로 했으며 순수 편찬 기간만 2년 가까이 걸렸다. 사전 감수는 이여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맡았다. 가격은 6만1800원이다.

윤승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은 출판 간담회 인사말에서 "게임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총 목표적인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게임사전 제작이 개발자와 이용자는 물론 융합 연구에도 도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게임사전' 출간기념 제작발표회를 갖고 있다.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사전 발간은 급성장하는 게임 산업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게임 인식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올해 기준 국내 게임 이용자 수는 2000만명을 넘었고 게임시장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0%가량은 게임에서 발생한다.

엔씨소프트뿐 아니라 넥슨, 넷마블게임즈, 컴투스 등 해외에서 팔목할만한 매출

을 올리는 국내 게임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매출 1조원 이상의 게임 작품만 8편이 넘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1%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모바일 게임 부문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게임 산업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만

치 않다. 게임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지적 자산으로서 축적된 자료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이인화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의 사회적·문화적 저평가는 게임 산업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게임은 한류 수출 콘텐츠의 핵심이고, 현재 게이머의 수가 20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회가 공인하는 언어의 지위를 아직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임사전은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국내 최초로 출간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으며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확산 영역에서 확인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게임을 역사·사회·인문학적 맥락으로 풀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여령 전 장관은 감사사를 통해 "21세기 게임의 시대로 게임은 당연한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모든 용어들을 모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시대의 계몽기를 열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백과사전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탄생했다. 게임사전을 시작으로 게임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제 게임에 대한 미신과 결별하고 똑바로 게임 문화를 바라볼 때"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미술협회 전북지회, 미술대전 작품 공모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제48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은 오는 7월 1일 단 하루간, 오전 10시~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 접수처에 하면 된다.

공모부문은 한국화·서양화·수채화·판화·조소·공예·디자인·서예·문인화·민화 등 총 10개 분야며, 미술대전의 종합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발표는 오는 7월 4일 오후 3시 전북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심사위원·초대·추천자가 초대전은 7월 15일~21일 전북예술회관 전관에 전시된다.

이번 미술대전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부문별로 2~3명 내외로 대외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2차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타 시·도지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장이 위촉한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강신동 회장은 "대외 장관을 일부 수정·보완해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했다. 심사 마칠음·청탁 등의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며 "올해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참신한 미술 작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전북 대중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열리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미술협회, 전북예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학교법인우석대학교가 후원한다. 문의 276-9475 /정해은 기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범 재판서 "위조 사실 인정"

작품 판매 혐의는 부인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80)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작품 위조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위작(偽作)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의 사서명위조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현씨가) 작품을 위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씨가 작품 위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작품 판매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골동품 판매상 등이 작품 판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현씨는 이들의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록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현씨와 검찰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현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로부터' 등 작품 3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작 3점을 이 화백의 그림이라고 속여 13억2500만원 상당에 판 할의도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화백은 전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 작가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이 화백은 자신이 봤던 작품 가운데서는 위작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날 감정을 진행한 뒤 "29일에 다시 오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순창 박종호, 전국고수대회 대상

"소리 듣는 게 좋아" 선택

판소리의 소리판에서 북장단을 치는 고수는 일명 북재바라고도 한다. 고수는 자세·가락·추임새로 참자(소리꾼)가 소리 할 수 있게끔 최적인 무대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창자와 함께 무대를 이끌어 간다.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 전주시, 한국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한 제36회 전국고수대회에서 25명의 고수가 배출됐다. 대회는 대명고수부·명고부·일반부·신인부·노인부·학생부 등 총 6개 부문에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수궁가 중 '자라와 호랑이의 민박' 대목을 부른 대명고수부의 박종호(38세, 전북 순창)씨가 수상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게 마냥 좋아 고수의 길을 택했다"는 박종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를 졸업했다. 판소리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는 향후 "판소리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옛 명창 중에는 고수였다가 명창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들은 판소리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 재능이 출중하다.

그는 "k-pop처럼 우리 소리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들려지길 바란다"며 "왕성한 무대 활동으로 그 저변을 확대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27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열렸던 고수대회의 부분별 대상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박종호(대명고수부 대상, 대통령상), 최정욱(명고부 대상, 국무총리상), 서은선(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하숙련(신인부 대상, 전라북도지사상), 진병길(노인부 대상,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이재창(학생부 대상, 전라북도 교육감상)

/정해은 기자

도문화관광·전북신보재단, 문화교류 협약

문화콘텐츠 마케팅 등 협력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7일 전북예술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도내 기업·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문화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홍보 마케팅 제휴, 문화예술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력,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공동 추진 체계 구축, 기업을 통한 전북 관광의 활성화 추진, 기업에 문화예술 단체 자매결연 매개 등이다.

전북신용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문화예술은 기업의 윤희유 같은 존재"라면서 "앞으로 신용재단과 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문화예술의 윤희유가 고무 스피드록 중간 매개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공헌·마케팅·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교류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방콕서 한국·태국 저작권 워크숍

'2016 한국-태국 저작권 워크숍'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태국 상무부(장관 아피라디 탄트라폰)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태국 지식재산청(청장 난타완 사룬타나)이 주관한다.

태국은 한국드라마와 K팝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다. 대중문화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패션 등 한국의 일반 기업 상품들에 대한 태국인의 선호도가 높아지

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의 보급이 급증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6.3%의 콘텐츠 시장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등 콘텐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센터를 설치했다. 태국 정부와 현지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합법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부터 매년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9일)

<p>▷쥐띠 46년생: 재물은 좋으나 건강은 좋지 못하다.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2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투기성이 짙은 일이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만 듣는 운.</p>	<p>▷소띠 49년생: 큰 움직임만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라. 73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도와라.</p>	<p>▷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 74년생: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고 인내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p>	<p>▷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나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p>
<p>▷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 64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라.</p>	<p>▷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온다. 65년생: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p>	<p>▷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양띠 55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 7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발부 하다가는 시비수를 면치 못하니 조심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사리에 처우해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2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닭띠 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 나이갈 때와 풀러설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고고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p>	<p>▷개띠 46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말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를 주시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결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p>